

## 엘리아데 종교학의 終曲

— 엘리아데의 자서전 · 일기 —

정진홍

멀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1907년 3월 9일 부카레스트에서 태어나고, 1986년 4월 22일 아침에 시카고의 버나드 밋첼 병원에서 죽었다. 여러해 동안 팔이 마비되어 글쓰기가 어려웠던 데다 1985년 12월 18일 메디발-롬바르드 신학교에 있는 그의 서재가 불탔을 때부터 그는 아주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의 서재는 그 불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책상 위에 있는 재떨이에 떨어던 그의 파이프 담배재에서 난 불은 삼시간에 그가 마지막 “학문적”인 정열을 쏟고 있던 History of Religions Ideas 제4권의 원고를 다 태워버렸다.

그러나 그의 책상 서랍 속에 있었던 그의 일기장(Journal)은 다행히 건질 수 있었다.

4월 28일 그의 장례는 시카고 대학의 록펠러 채플에서 거행되었다. 그의 평생 동향친구이던 쿨레누(Ioan Culianu)가 그의 소설 『금지된 숲(The Forbidden Forest)』의 한구절을 읽었고, 리피르(Peal Ricoeur)가 『우주와 역사(Cosmos and History)』의 한구절을 읽었으며, 오프레이터(D. O'Flaherty)가 『요가 : 불멸과 자유(Yoga : Immortality and Freedom)』를 읽었다. 찰스 롱(Charles Long)은 흐느끼며 조사를 했다.

그의 소원대로 그의 몸은 화장을 했고 한줌의 재로 대학에서 멀지 않은 오크우드 묘지에 묻혔다.

엘리아데는 이렇게 태우고 태워져 갔다. 그런데 그의 일기는 남았다.

그가 왜 일기에 집착을 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쩌면 성격탓이리라. 그러나 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시간을 ‘아끼고(save) 보존(preser)’하려는 자연스러운 몸부림이었다. 시간을 늘 ‘새로운 발견’을 담고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 낡은 빈집에 비치는 마지막 햇살, 공원을 거닐다 뒤돌아 보았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앉아 있었던, 아니면 앉아 있지 않았던 빈 결상의 갑작스러운 발견...” 그런 것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썼다. 네살 때에도 그랬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가다 “초록색 윗도리에 빨간색 스커트를 입고 저쪽에서 자기처럼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오던 눈 큰 계집애,” 그녀를 만났던 ‘신비스러운 감동’을 몸살했던 며칠, 그는 그것을 그 날 쓰지는 못했지만 써두어 ‘시간’을 ‘지속’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일기만을 쓰지 않았다. 일찍부터 자서전을 쓰고 싶었다. 그는 일기와 더불어 이미 1937년, 그의 나이 설혼에 자서전을 썼다. 그럴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자서전을 세권의 책으로 마련해야겠다는 꿈도 지니고 있었다. 루마니아어로 쓰여진 첫번째 자서전은 “Autobiography Journey East, Journey West”로 영역되어 1981년 출판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계획을 이루지 못할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두번째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던 그는 상당히 초조해 있었던듯 하다. 1984년 12월 10일 그는 미국종교학회가 자신의 일흔다섯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런저런 준비로 부산해 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묻고 있다. “그 마지막 날 저녁까지 내가 이 자서전을 써낼 수 있을까?” 그 때 그는 자서전 둘째권의 24장을 쓰고 있었다(둘째권 Autobiography, Exile’s Odyssey는 25장까지로 되어 있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첫번째 책이 1907년에서 1937년까지, 두번째 책이 1937년에서 1960년까지를 다루었을 뿐. 그가 죽던 1986년까지의 26년은 그의 자서전에 담길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그의 일기를 통해서도 그 뒤의 그의 삶을 여전히 들여다 볼 수 있다. 1957년에서부터 1969년까지의 일기를 모은 “No Souvenir”가 그것이다. 또 그가 죽은 뒤 그가 써두었던 루마니아어로 쓴 일기는 모두 시카고 대학 레젠슈타인 도서관의 Mircea Eliade Special Collection에 보관되어 있다.

그가 왜 일기를, 그리고 자서전을 그렇게 쓰고 싶어했고 또 썼을까? 그의 일기쓰는 실은 그의 일상이었다. 그러니 그것은 그저 그의 생활태도라고 해두자 그렇지만 나이 설혼에 자서전을 썼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그처럼 필생의 집념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 그것은 아무래도 묻고 되물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시간으로부터의 탈출'이 종교적 신앙의 내용인듯한 그의 이해에 의하면 그것은 스스로 저지른 자기반역의 행위일 수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비록 그의 자서전하고는 적어도 범주론적으로 다른 그의 일기를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 지닐 것 없음(No Souvenirs)"으로 표제한 그 의도를 헤아려 보면 분명히 그도 자신의 인식체계에 대한 어찌면 배신일듯한 작업을 스스로 감행하고 있음을 간파했던 것은 아닌듯 싶다. '시간을 아껴고 보존해야'하는 필연과 '시간으로부터 탈출해야'하는 당위의 갈등을 그는 모르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자서전 쓰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짐작할만 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속에 함몰되어버리는 것을 두려워 했던 것이다. 삶은 그저 살아 흐르는 것일 수가 없다. 그것은 살일 때조차도 하나의 '현실'로, 하나의 '객체'로 현존한다. '자기에게서'조차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식'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적어도 그 현존성, 그 객체성이라는 개념의 '실재'로 내 경험 안에서 주체화 되어야 한다.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무지 '실재'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실재는 현재에서 실재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회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을 살고 있다. 그것이 '시간으로부터의 탈출', 곧 '구원'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망각의 현실성을 규범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망각도 삶의 본유적인 모습이고, 그건 한 그것도 실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상'이란 '망각'의 대칭개념은 아니다. 망각은 회상 속에서 확인되는 실재이고 회상은 망각 속에서 확인되는 실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회상은 망각을 확인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망각은 회상을 가능케 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자서전 쓰기'가 결코 그의 '시간의 보존'과 '시간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역설적 갈등을 노출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삶의 모습, 적어도 실재를 확인하는

당연한 삶의 양태이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한다면 망각만으로는 자기실재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실재의 거절일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상만으로도 실재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망각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실재를 실재이게 하는 것은 ‘지닐 것 없음의 있음’을 승인하는 것, 곧 ‘망각의 회상’일 수 밖에 없다. 실재는 ‘망각의 회상’에서만 비로소 그 실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엘리아데의 ‘자서전 쓰기’는, 그러므로 실재의 승인이고 그것은 그의 종교학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는 진화론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의식의 심층을 분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철저한 인문주의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리에서, 혹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자리에서, 고대의 존재론을 분석한다. 그것은 종교현상의 실재성을 승인하려는 논리이기도 하고, 종교학의 인식론에 수용되어야 할 객체설정을 위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자서전 쓰기’는 그대로 그의 학문이면서 그의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자서전은 결코 그를 이해하기 위한 매체로써의 역사일 수가 없다. 역사는 다만 “회상의 존재론”일 때, 그의 ‘자서전 쓰기’에서 극화(劇化)되어 있는 그의 존재론은 ‘망각의 회상의 존재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자서전 쓰기’가 ‘재구성’이 아님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창조”이다. 그가 ‘역사의 공포로부터의 최선의 방어’는 “창조”라고 했을때의 그 제의적 구조를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의 회상은 사실을 되풀라내고 있다. 1938년 6월 14일 그는 정치범으로 체포된다. 전등 한알만이 빛나는 독방, 옆방에서의 고문, 녹막염으로 인한 병동애의 이송, 4개월만의 출감, ... 그런 사실들을 그는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 그날은(병동으로 이송되던 때) 어둡고 구름긴 날이었다. 죄수들은 모두 마당에 나와 내가 간수들 옆을 지나 전기 철조망을 지나 수용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슬픔과 다행함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 열달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처형 되었다. ... 나는 멀리서 사라지는 수용소를 다행한 기분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 나는 호송장교 옆에서 아무 말없이 앉아 있었다. ... 숲을 지나 한 밤중에 나는

병동에 도착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병동은 마치 불꽃을 뒤집어쓴 궁전 같았다.”

그의 ‘자서전 쓰기’는 실제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도 아니다. 그는 그의 ‘회상’속에서 역사가 잊을 수도 있을 ‘망각의 회상’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실재가 인식의 지평에 등장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는 인위, 사실이라는 일상에 의하여 여전한 망각으로 스며드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자서전 쓰기’는 마침내 자서전이 아니라 ‘역사의식’, 현대인의 거창한 우상에 대한 파괴작업이 된다. 첫번째 아내를 비참하게 사별한 뒤에 만난 이혼녀 크리스티넬과의 사랑의 고백에서 그의 문학은 마침내 그의 학문에 대한 “해석”으로 자리잡는다. 그것을 그는 그 유명한 저술 『물음(Quest)』에서 창조적 해석학에 바탕한 네오희머니즘으로 언표한다. 크리스티넬을 만났을 때, 그녀는 엘리아데의 루마니아어로 쓴 짧은 소설에 대한 감동을 전하면서(그녀도 루마니아인이었고 빠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에게 소설을 계속 써주길 부탁한다. 그때 엘리아데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소설을 쓴단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문학이란 루마니아어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꿈 꿀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인 루마니아로 말야”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여기 몇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그리고 급히 말을 이었다. “이rol테면 저를 위해서 말예요” 이 경험을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 우리는 서로 우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금 일어난 일에서 서로 놀라면서(그 순간 뒤에 이미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었는가를 나는 나 스스로 묻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잇는다 “루마니아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인데...”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이미 그것은 사실을 넘어선다. ‘역사의식’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신비’이다. 불행히도 역사의식은 사실의 망각을 회상할 수는 있어도 망각의 회상은 허상할 수가 없다. 한편의 ‘소설’도 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삶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일 수 없는 것이다.

엘리아데의 회상은 사랑, 그 신비를 창조한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사실의 ‘실재화’이고 그의 문학은 실재화된 사실의 “해석”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 진다. 그가 왜 '자서전 쓰기'에 그렇게 집착했든가 하는 물음은 스스로 해답을 담고 있다. 그의 학문, 그의 문학, 그것은 그대로 그의 삶이었고, 삶을 읽는 것이었고, 삶의 의미를 터득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되돌아가 다시 그의 삶이었다. 그는 그의 학문이 '인식의 논리'이기를 부정했고, 그는 그의 '문학이 상상의 펼침'임을 거절했다. 도대체 그 따위 '학문'이나 그 모양의 '문학'이란 '우상숭배'이다. '사실의 절대화'나 '상상의 절대화'는 모두가 '타락한 인간', 그것도 '스스로가 타락한 인간'임조차 망각한 인간'의 슬픈 '불가능한 구원에의 절규'일 뿐이다. 당연하게 종교학은 히에로파니를 '양적으로' 탐구할 수는 없다. 종교학은 'authentic'하고 'imaginative'한 해석학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학도가 지니고 있는 기억(memory)과 문학 비평가, 그리고 역사학자의 기억을 비교해보라"

그의 '자서전 쓰기'는 그대로 그의 학문이었다. 아니 그의 학문은 그의 '자서전 쓰기'였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건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된다. 그의 학문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문학은 또한 그의 삶이었다. 그가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그 '두 우주'를 스스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살았다. 그렇다면 그는 실은 학문과 문학, 그것이 구분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실은 다만 '자서전 쓰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에게서 그의 '학문'을 그의 '문학'을 찾아 흥분하고 감동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타고 그 자신마저 한줌 재로 불타버린 빈 뜨락에 앙상한 낙엽으로 흩어진 그의 자서전과 일기는 '영적 훈련'이어야만 한다고 그가 그처럼 부르짖던 종교학을 위한 이 가을 또 한번 불붙여 태워져야 할런지도 모른다. 새로운 제의를 위해.

Mircea Eliade, *Autobiography, Vol. I. 1907-1937. Journey East, Journey West*, tr. by

M. L. Ricketts, Harper & Row 1981.

———, *Autobiography Vol II. 1937-1960. Exile's Odyssey.*

tr. by M. L. Ricket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No Souvenir: Journal, 1957-1969*, tr. by F. H. Johnson, Jr. Harper & Row. 1977.